



'4차혁명 총아' 기업용 SSD 진출… 실적 날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K하이닉스

72단 512Gb 3D낸드플래시 기반
UHD급 영화 200편 저장 가능
펌웨어·컨트롤러 자체기술 탑재

SK하이닉스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 진출한다.

최근 급성장 중인 기업용 SSD는 대형 데이터센터와 서버 제조업체가 주로 고객사로, 일반 소비자 시장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을 개발과 양산으로 낸드플래시 수의성은 물론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4세대 72단 512기가바이트(Gb) 3D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최대 4테라바이트(TB) 용량을 지원하는 SATA 규격 SSD 개발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제품 개발과 함께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와 서버 제조업체에 샘



SK하이닉스 제품 개발자들이 웨이퍼와 SSD를 들고 있다.

/SK하이닉스

플 공급과 함께 고객 인증도 시작했다.

SSD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SSD 시장 규모는 2017년 251억 달러(19조5600억원)에서 2021년 312억 달러(33조9000억원)로 연평균 5.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나 기업용 SSD 시장은 부가가치

가 높은 만큼 기술 진입장벽도 높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관련 시장에서 실적이 없어 최대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고용량 기업용 SSD와 함께 고성능 PCIe 규격 SSD까지 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세가 높은 기업용 SSD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출시한 기업용 4TB SSD는 72단 512Gb 3D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용량이 20기가바이트(GB)쯤 되는 UHD급 영상을 200편 저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자체 개발한 펌웨어와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SATA 규격에서 최대 연속 읽기 초당 560메가바이트(MB), 최대 연속 쓰기 515MB/s, 랜덤 읽기 9만8000IOPS(초당 입·출력 처리량), 랜덤 쓰기 3만2000IOPS의 성능을 구현했다.

함께 선보이는 PCIe 규격 SSD는 1테라바이트(TB) 용량으로 출시된다. 이 제

품은 보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적합하다. PCIe는 서버 메인보드에 각종 확장 카드를 직렬로 연결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규격을 말한다. 이 제품은 최대 연속 읽기 2700MB/s, 최대 연속 쓰기 1100MB/s, 랜덤 읽기 23만IOPS, 랜덤 쓰기 3만5000IOPS를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제품 라인업 및 고객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낸드상품기획담당 강진수 상무는 “지난해 4세대 3D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자체 펌웨어와 컨트롤러를 탑재한 소비자용 SSD를 본격 양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용 SSD까지 자체 개발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며 “성장세가 높은 기업용 SSD 시장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회사의 낸드플래시 수의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CEO는 역시 실적으로!” 보험 好실적 4인방 연임 파란불

〈차남규·김정남·김용범·김현수〉

‘낙하산 인사 논란’ 안양수
‘육담대 사건’ 구한서 빨간불

내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교체 등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호(好)실적을 기록한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DB손보 김정남 사장, 메리츠화재 김용범 사장 등은 연임이 확실시되지만 일부 CEO의 경우 경영난 등의 문제로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등 생보사 CEO는 내달 임기가 만료된다.

KDB생명의 경우 내달 안양수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현재 보험개발원 등을 거친 보험업 전문가 정재우 세종대 교수를 일찌감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이사

안양수 사장은 그간 끊임없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시달려 왔다. 옆친데 덮친격으로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기준(150%)을 한참 밑도는 등 경영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지난달 30일 정 교수를 KDB생명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오는 21일 임시주총 및 이사

회 개최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한화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승진했다. 한화그룹 출신이 한화생명 부회장에 오른 것은 차 부회장이 처음이다. 임기 간 한화생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금융 정착 등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구한서 사장과 뤼첸룽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이루고 있다. 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이 뤼첸룽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앉히면서 구 사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구 사장 임기 중인 지난 2016년 유례없는 유통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손실 책임이 뒤따른다. 구 사장의 퇴진이 전망되는 이유다.

DB손보 김정남 대표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DB손보는 사명 변경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6024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브랜드명 변경도 성공적으로 이뤄난 설명이다. 김 대표가 이번 연임에 성공할 경우 무려 11년 동안 사장 자리를 지킨 업계 최장수 CEO로 기록될 전망이다. 동부화재 시절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취임 후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메리츠화재 김용범 사장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연임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3846억원의 당기순익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순익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62.1% 나증가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12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롯데손보 김현수 대표이사 역시 최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해 연임이 확실해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롯데손보 사장 취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익 234억원, 순이익 143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직 임기 가 남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오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실종 한때 850만원대까지 떨어져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00만원선도 붕괴됐다.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투매에 나서는 전형적인 ‘페닉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보다 시세가 낮은 ‘역(逆) 김치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났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60%가 넘게 하락했지만 과거 조정기에 하락폭이 75%까지 확대됐음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다.

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 오후 850만원선까지 하락했다.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588만4000원과 비교하면 67% 폭락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았던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역 김치프리미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해외 송금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1000원선이, 지난달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100만원선이 깨졌다.

악재는 안팎에서 모두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본격 시행됐으며, 은행들이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여의치 않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가상화폐 업체 테더에 대한 가격조작 의혹으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과거 고점 대비 75%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 여지는 남아있다. 75% 하락 수준은 650만원 안팎이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청탁금지법 풀리니… 설 소비 살아났다

유통업계 선물세트 판매 호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인기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사전 예약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올라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롯데백화점이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2월 3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년(2017년 1월 2일~15일) 동요일 대비 25.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전통적인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상품군별로 실적을 분석해보면 축산이 37.8%로 가장 크게 신장했다. 농산 35.2%, 수산 31.7%이 뒤를 이으며 농축수산물 등의 신선식품 수요가 눈에 띠게 늘었다.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축산 선물세트는 전년 동기 대비 95.7%나 급증했고 농산은 37.4%, 수산이 70.2% 각각



모델들이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2018년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올랐다.

부정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되며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지난달 5일부터 2월 2일까지)은 전년 보다 35%나 신장했다.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이 각각 신장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지난달 5일부터 2월 2일까지)은 전년 설 대비 31.5% 늘어났다. 지난해 설 선물세트 기간 매출이 8%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 고객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은 49.4% 늘어났다.

지난해 설에 5만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개인들이 선물 단가를 높여 한우·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고객 매출도 증가했다. 일반 고객 설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설 대비 31.5% 늘어났다. 지난해 설 선물세트 기간 매출이 8%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지난달 5일부터 2월 2일까지)은 전년 설 보다 35%나 신장했다.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이 각각 신장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신세계에서도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